논어 19편 자장 16장 · 원문·풀이

曾子曰：「堂堂乎張也，難與並爲仁矣。」

독음 · 증자왈 당당호장야 난여병위인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증자는 자장이 당당하지만 함께 인을 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평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曾 일찍 증 증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堂 집 당 당

乎 어조사 호 / 張 베풀 장 장 / 也 어조사 야 / 難 어려울 난 난

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並 竝과 同字 병 / 爲 할 위 / 仁 어질 인 인

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